대강백 지안 스님, 扶宗樹敎 환희의 법석

〈부종수교〉

12월 3일 통도사 반야암 전강법회 열어

지안 스님, 전강 게송 전달
부처님 교법 영겁에 잇길 당부
제자 금강·한북·명오·대진 스님
"佛法 수호자 될 것" 존경 표해



12월 3일 '요산지안 대강백 강맥전수전강식'이 통도사 반야암에서 봉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대진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교수), 한북 스님(대구 보성선원 주지), 대강백 지안 스님,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명오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교수).

대강백 지안 스님이 법좌에 앉았다. 인생을 회향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며 법문을 시작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언급했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비친다. 부종수교(扶宗樹敎)는 '부처님의 법을 잇는다'는 승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안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듯 전강게를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12월 3일 통도사 반야암서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다. 지안 스님의 강맥전수 전강식이다. 전강식은 교가(敎家)에서 강맥을 전수하는 불가(佛家) 전통으로, 전법 의식 가운데 하나다. 또한 제자의 역량을 확인한 스승이 전강식을 통해 강맥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청출어람 발군의 인재로 불법문중의 큰 동량이 될 것을 당부하는 자리다.

전강 제자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한북 스님(대구 보성선원 주지), 명오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교수), 대진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교수)이었다.

지안 스님은 먼저 금강 스님에게 설창(雪窓)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 법은 항상 어디에서나 설해진다.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고 돌이켜 비춰 보는 것이 참된 경을 보는 것"이라며 "마음을 밝혀 경안이 밝아질 것"을 당부했다.

한북 스님에게는 각송(覺松)이란 법호를 내리며 "온갖 방편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무량 인연을 따라 한량없는 중생을 해탈케 해주는 장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에 맞는 포교법으로 정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

명오 스님은 석연(石蓮)을 법호로 받았다. 지안 스님은 "연꽃은 아시다시피 진흙 못에 자란다. 불가에선 연꽃을 비유해 법을 고찰하고 설해왔다. 불법의 핵심대오를 연꽃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깨달음을 얻으면 석연이 만공에 향기를 품을 것"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대진 스님에게는 문해(文海)라는 법호를 내리며 경전 공부에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다. 지안 스님은 "원래 법은 문자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지만 마음을 깨닫는데 문자를 떠날 수 없다"며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경전 글자 하나하나를 법신사리로 여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안 스님은 법문서 "오늘 전강 제자들을 오랜 시간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 제자들이 강맥을 후대에 전달하고 부처님 법을 지켜나가, 불법을 융성하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강 제자들은 헌향, 고불문 봉독, 인사말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북 스님은 인사말서 "스님께서는 강사로서 학인을 가르치는 방법과 자세까지 세밀하게 일러주셨을 뿐 아니라 계정혜 삼학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며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전강법사인 지안 스님은 1970년 통도사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선 후기 대강백인 백파 긍선 스님과 근대의 대강백인 한영 정호 스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전수 받은 월운 해룡 스님을 법사로 강맥을 전수 받았다. 이후 통도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직지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반야불교문화원장을 맡고 있다. 지안 스님은 2006년에 7명, 2008년에 3명의 스님들에게 강을 전했으며 이번이 3번째 전강식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직지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흥선 스님,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장 선지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차 공양으로 세계 평화 기원합니다"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차 공양을 올렸다. 12월 2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주최한 '다문화와 함께하는 세계 차문화 평화 한마당'에서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진구불교연합회 부회장 정현 스님·총무 도선 스님, 박차귀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천도교 공동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엔 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 다문화 다도팀 등이 함께 했으며, 다도시연 및 전통문화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욱 풍성했다. 하성미 기자

'얼쑤!' 사물놀이로 나눔과 화합을

불광사, 12월 2일 풍물패 '불라다(佛羅多)' 창단 공연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의 '라오의 산들바람(회장 이복희)'이 풍물패 '불라다(佛羅多)'를 창단하고 기념공연 '땅울림'을 12월 2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서 개최했다.〈사진〉

'불라다'는 부처님 불(佛), 라오스의 라(羅), 다문화 가족의 다(多)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가정과 라오스에 부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단 취지로 창단됐다.

공연은 모든 참가자들의 복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시작해 불무도와 무당당검, 도량청정을 위한 경교, 모듬북, 영남사물, 판굿 등으로 진행됐다.

보광 스님은 "오늘 이 자리서 기쁨을 가득 채우고, 그 기쁨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기 바란다"며 "소리에 맞춰 어깨춤도 추고, '얼씨구나' 추임새도 넣어가며 함께하자"고 말했다.



'라오의 산들바람'은 무료급식 및 매월 경로당 및 장애인 시설 급식을 진행하고, 다문화 가족 장학금과 라오스 학교 건립 및 지원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파라미타, 20주년 청소년 예술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 이하 부산 파라미타)는 20주년 맞이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한다. 12월 17일 오후 2시 부산정보고등학교 체육관서 열린다.

청소년 예술제는 부산정보고, 금정중, 해동중, 성심보건고, 학산여중 등 분회원 학생 300여명이 참가한다. 예선을 거친 10팀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춤과 노래, 연극 등 다양한 무대가 경연으로 펼쳐진다. 대상·금상·은상 각 1팀과 동상 2팀, 입상 5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된다.

백명숙 부산 파라미타 협회장은 "20년의 긴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격려했다. 이번 예술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기량을 펼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051)513-4306 하성미 기자

부산 불교, 추위 나눔으로 녹이다

무료 급식소 및 복지관, 나눔실천의 장 열어

차가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부산 불교 복지관과 무료급식소가 나섰다.

부산 반송 백운사(주지 마나)가 운영하는 우담 자비원이 사랑의 일일 찻집을 열었다. 12월 7일 우담자비원 급식소서 처음 개최된 '사랑의 일일 찻집'은 무료급식 뿐 아니라 겨울 용품을 지원해 더욱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찻집으로 모은 성금은 반송 지역 소외 계층의 겨울나기 용품으로 회향된다.

사랑의 일일찻집에는 경담 스님(전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을 비롯해 백운사 신도, 지역민 및 새터민 봉사자까지 참여해 나눔에 동참했다.

마나 스님은 "6년 동안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눔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운사 무료급식소 우담 자비원은 12월 7일 급식소서 사랑의 일일 찻집을 열고,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담 자비원은 2010년 9월에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로 문을 열어 매주 금요일 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051)542-4630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구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은 12월 7일 부산 괴정 한 식당서 쪽방어르신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먹거리 장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민 뿐 아니라 복지관 관계자들이 동참,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자리였다.

이혜정 관장은 "추운 겨울 쪽방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복지관 식구들과 지역민들 그리고 불교계 많은 분들이 보여준 관심은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051)263-3045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정, 장애인세대를 위한 '사랑의 겨울 나기'를 진행 중이다. 사랑의 겨울나기는 김장김치 및 방한용품, 보일러 기름, 난방용품, 담요, 이불 등을 후원받아 지원하는 행사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며 "추운 겨울 온 종일 차가운 바닥서 지내야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후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후원금과 물품 모금은 12월 30일까지 진행한다. (051)628-6737 하성미 기자

해운정사, 송년회 및 산사음악회

주지 청명 스님,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자"

대구 달서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12월 4일 '제7회 해운정사 송년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 문수암 월오 스님, 광명사 성덕 스님, 대응공사 도경 스님 등 도반 스님들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청명 스님은 "올 한 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보단, 무엇을 이루고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며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니 행복한 사람임을 알겠다. 오늘 자리를 통해 소중한 불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더욱 행복한 수행정진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조태흠 신도회장은 "늘 부처님 전에 감사하며, 뜻 깊은 올 한 해도 수고한 임원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도심 속 가람서 근심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좋은 인연들을 맺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